

2024 표어

#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나에게 주리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 1장 3절]

애틀란타 **새** **축복교회**



2024년 1월 7일 청년부 예배

##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경배와 찬양	나는 자유해 / 모두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Behold
기도		최동현 목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16장 25절 - 40절	드라마 바이블
말씀선포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최동현 목사
헌금찬송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같이
봉헌기도		다같이
결단기도		다같이
축도		최동현 목사
교회소식		주수경 자매

## 공동체 소식

1. 할렐루야! 애틀란타 새축복교회 뉴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교우동정
  - 환우 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형준, 유명미)
3. 교회 / 청년부 소식
  - 오늘 친교 | 김창숙 권사님이 준비하였습니다.
  - 1월 생일 | 김솔, 조용래, 서혜빈, 주수경, 장진
  - 2024년 특별새벽기도회가 1월 2일 - 13일 있습니다.
  - 새로운 셀 편성 | 다음 주일 1월 14일에는 새로운 셀을 편성합니다.
  - 청년부 총회 | 오늘 1월 7일은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 사역보고 : 2023년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함께 돌아보고, 한 해 신실하게 섬겨준 운영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2023년 운영단을 위한 기도 : 한 해 동안 신실하게 섬겨준 운영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2024년 운영단 선출 : 올 한 해 청년부를 섬길 운영단을 선출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예배 위원

DAY	대표기도	뒷정리
1/7	총회 이후 정하겠습니다	-
1/14	-	-
1/21	-	-
1/28	-	-

## 새축복교회의 핵심 가치

말씀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공동체 (엡 4:11)
치유 공동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공동체 (엡 4:12)
양육 공동체	영적 성숙으로 장성하는 공동체 (엡 4:13, 15)
훈련 공동체	제자로 세우는 공동체 (엡 4:11)
선교 공동체	복음으로 땅끝을 품는 공동체 (엡 4:11)
셀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가 함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 (엡 4:16)
중보 공동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는 공동체 (엡 6:18)

## 교회 예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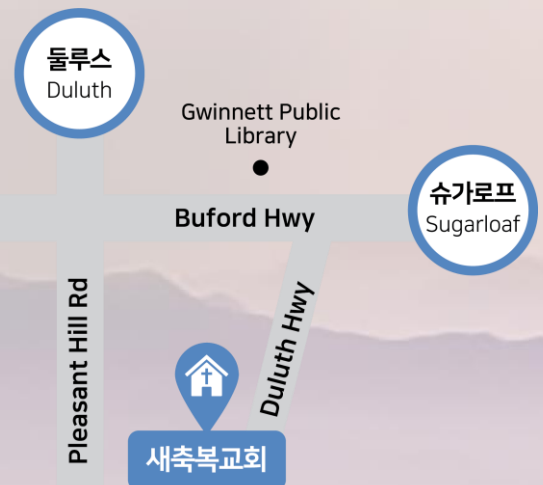
주일 장년예배오전 10시 40분  
주일 청년예배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예배 화-금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7시

## 헌금 안내

Venmo  
@newblessingchurch  
Zelle ID  
newblessingchurch.atlanta@gmail.com

## 양육과 훈련 안내

새가족 교육 (3주)  
세레자 교육 (5주)  
결혼 학교 (4주)  
통독 훈련 (매년 1번)  
셀 성경공부 (매주 예배 후)  
밀알선교회 (매주 셋째주 토요일)





20240107 주일청년 설교요약 | 사도행전 16장 25-40절

#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첫째, 우리의 찬송은 세상에 손짓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입니다.**

(행 16: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행 16: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행5:19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휘말려 들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창살이 구속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빌립보 성으로 이끄셨음을 생각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도달했고, 방법은 달라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소란스러운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맞은 매로 인해 억울하지 않고, 고난의 스테이지 위에 올려진 복음이 퍼져가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찬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감옥에서 웃을 수 없는 죄수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향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 하는 곳에서, 그 무엇으로도 달을 수 없는 소망의 문이 복음을 통해 열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쉽게 좌절하지 않고,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녹여내기 원합니다.

## **둘째, 복음과 사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줍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사명의 자리를 아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27-31절)

그들이 찬송할 때, 그들을 결박하던 결박이 풀어졌습니다. 모든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을 지키던 간수는 자결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도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도망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던 죄수들은 풀려난 이후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감옥문이 풀리는 순간까지, 그들의 손목과 발목을 결박하던 차꼬가 풀어지는 순간까지 그들이 듣고 있던 바울과 실라의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을 그들은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과 지금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음을 그들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발걸음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육체의 목적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체의 자유함이 아니라, "심령의 자유함"을 쫓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었고, 그들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도망가는 대신, 남아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붙잡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혹자는 이 상황을 자유 대신 사명을 선택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명이라는 이름의 자유를 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명자는 자유롭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도망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누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에 붙잡히는자 만큼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 이외에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위협도 그를 결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 **복음과 구원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29-31절)**

기묘한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간수가 죄수에게 "어떻게 구원 받으시"를 묻고 있습니다. 죄수가 간수에게 해야 하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간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갇힌 자는 바울과 실라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들이 가진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 자유의 힘을 날것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들을 붙잡고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방금 전에, 죄수들이 도망갔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목숨을 끊으려 했던 스스로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을 처벌이 두려워 두려움에 밀려 생명을 버리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우리를 붙잡고 멸망으로 가져가는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뜻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박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풀려난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이 아닙니다. 오늘 풀려난 진정한 죄수는 바로 그 앞에서 엎드린 "간수" 였습니다. 간수는 그의 영적 양심에 의해서 확실히 알았던 것입니다.

###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치유가 임합니다. (32-34절)**

이 날 놀라운 치유가 임했습니다. 죄수와 간수의 벽이 허물어 졌습니다. 간수는 바울의 육신의 상처를 치료해주었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를 멸망시킬 뻔한 두려움으로부터 그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모든 가족이 함께 누리는 놀라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과 치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치유와 회복은 여러분을 타고 흘러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 **복음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유와 용기를 줍니다. (35-40절)**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음을 밝힙니다. 애초에 매 맞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의도적으로 매를 다 맞고, 감옥에도 갇히기를 택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힘으로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복음이라는 권능"에 붙잡혀서 복음이라는 사명을 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만일 그렇게 했다면, 간수들도 죄수들도 복음을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희생을 타고 흘러갑니다. 애초에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휘두르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 셋째, 복음은 참된 위로와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38-40절)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간수의 상관들은 두려워 떨며,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가 성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적법 절차 없이 매질하는 것이 무서운 중범죄에 해당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힘을 두려워합니다. 힘을 숭배합니다. 힘의 노예가 됩니다. 몸을 살리고 죽이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세상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으로써 감옥에 갇힌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루디아는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있었다고 얽혀서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모른척 해야 안전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시다.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을 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집으로 모아 두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써의 용기가 작동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복음은 용기의 근원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형제들을 위로한 장면입니다.

누가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매를 맞은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과 실라 아닙니까? 그런데 매를 맞은 그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감옥 밖에 있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삶이 평탄하고 편안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흔한 편견을 도전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거쳤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감옥을 거쳤지만, 감옥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찬송과 함께 일어난 기적,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의 소식. 감옥에서 그들은 자유와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간증과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본 사람은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는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 합니다.

(고후 1: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후 1: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후 1: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후 1: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는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